

출판 주류로 떠오른 그린 라이프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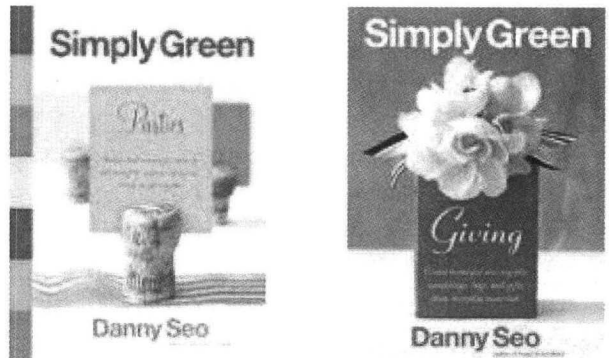
글_ 서주현 북코스모스 저작권팀 영미권 담당

최근 미국에서는 녹색 운동(Green Movement), 녹색 삶(Green Living) 등의 키워드를 필두로 '그린 라이프 스타일(Green life-style)' 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친환경 요리책, 친환경 가구 및 주거 공간 만들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린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친환경 정치 및 정책, 글로벌 환경 변화 등에 관련된 책들도 속속 기획, 출간되고 있다.

미국 출판계의 빼놓을 수 없는 움직임 중 하나로, 몇몇 작가들과 이익 단체 및 소신 있는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종이쓰기 운동을 들 수 있다. 바바라 킹소버(Barbara Kingsolver), 엘리스 먼로(Alice Munro),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 엘리스 워커(Alice Walker) 등의 저자들이 출판사측에 환경 친화적인 종이를 자신들의 책을 인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출판계의 변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익 단체 중 하나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출판사들이 100%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2백5십만 회원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미국판을 출간하고 있는 스킨라스트(Scholastic)에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사례도 있다. 한편 해리포터의 캐나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판을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들은 이미 환경 친화적인 종이를 책을 인쇄, 배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도 그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도서를 비롯한 각종 환경친화제품 판매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에코몰닷컴(www.ecomall.com)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네트워크 망을 넓히고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관련 사업을 에코몰닷컴이라는 하나의 디지털 지붕 밑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20년이 넘게 환경 관련 주제를 다룬 책들을 출간해 온 첼시 그린(Chelsea Green)이 1994년 친환경 건축을 소재로 한 《The Straw Bale House》를 출간했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코웃음 쳤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희한한 책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책이지만 이 책은 현재까지 14만 5천부가 팔렸고, 지금은 최고의 건축가들이 친환경적인 건축 설계를 위해 이 책을 참고하고 있다.

올 해 하퍼콜린스는 대니 서의 《Simply Green Parties》(2006년 6월)와 《Simply Green Giving》(2006년 9월)을 선보인다. 환경 전문 채널 라임 TV에서는 대니 서의 독자적인 TV 쇼인 'Simply Green with Danny Seo' 를 방영하고 있다. 대니 서는 환경 분야에서 확실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몇 안 되는 유명인 중 한 명이지만, 이 같은 그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사실을 출판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구 지킴이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의 출판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잡지, 시에라(Sierra)는 그

린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그러한 삶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에라는 지난해 11월부터 '녹색 삶(The Green Life)'이라는 섹션을 만들어, 구독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삶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쉬운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사들을 싣고 있다.

그린 라이프를 소재로 한 다양한 도서들

이러한 그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은 서점에서 한 섹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유기농 재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태양력이나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책들을 집기 시작한 것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친환경 건축(Green building)에 관한 관심 또한 커져 첼시 그린의 《The Green Self-Build》도 11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어떻게 친환경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는 깁스 스미스(Gibbs Smith)의 《It's Easy Being Green》(06년 1월)과 에이브람스(Abrams)의 총체적 그린 가이드북인 《Worldchanging》(2007년 1월)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환경관련 서적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얼스스캔(Earthscan)의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Policies》(2007년 1월), 브루킹스(Brookings)의 《Green Cities: Urban Growth And the Environment》(2006년 10월) 등은 환경과 경제, 정치, 도시 계획 등을 연계해 좀 더 목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DK의 임프린트인 러프 가이드(Rough Guides)의 《The Rough Guide to Shopping with a Conscience》

(2007년 1월), 사이먼&슈스터(Simon&Schuster)의 《Green This! Vo.1: Green Your Cleaning》(2007년 4월) 등 친환경 쇼핑과 청소 등에 대한 실용서 또한 주요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곧 출간될 예정이다.

변화의 물결

이제 그린 라이프 스타일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 이미 주류로 올라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잠시 지나가는 트렌드(trend)나 패드(fad)가 아니라 문화 변혁(cultural shift)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래산업의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기에 출판계의 종사자들도 이를 미리 깨닫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 관련 서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녹색평론사, 도요새, 에코리브르 등 환경 관련 서적을 꾸준히 출간하는 출판사도 있다.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 서적이 다수 출간되고 있는데, 자연과 생태계를 직접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듯하다. 앞으로 그 영역이 더욱 넓어져, 한국에서도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 실용서나 교양서 시장이 활발히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은**

이 글을 쓴 서주현은

자칭 '책'을 통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피스트(bookpist (book + happy+ist)).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가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전파하는 게 꿈이다. 북코스모스 에이전시의 저작권 에이전트로 영미권 도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영어 및 일어 통번역 활동도 하고 있다. 중개한 책으로는 《내 생애 남은 아름다운 날들》 《미친 뇌가 나를 움직인다》 《돈의 원리》 《Smart Question》 《동방을 꿈꾸며》 등이 있다.